



Analyst 이달미 · 02-3773-9952 · talmi@sk.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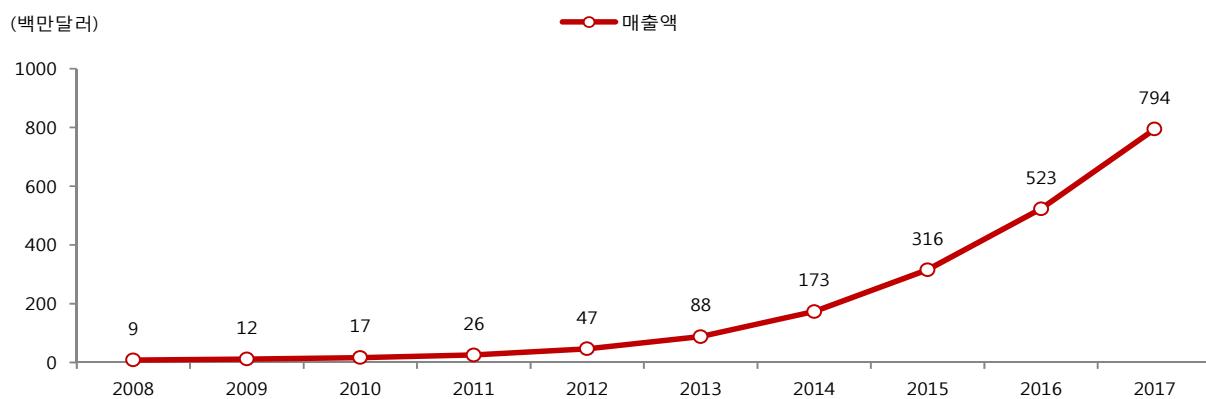
Issue Comment

- ✓ 정부에서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진 중
- ✓ 규제완화 기대로 바이오업체들의 주가 상승세
- ✓ 관련 수혜종목은 유전자 치료 업체와 유전자 편집 업체

제약/바이오(Overweight) -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정부의 규제완화 기대감

- 1월 14일 유전자 치료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한 보도로 유전자 치료제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나타남.
-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 등이 유전자 치료와 장기이식의 규제를 기존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중이라고 함. 포지티브 규제 방식은 'A,B 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금지한다'는 식의 규제 방식인데 그 동안 이러한 방식이 바이오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여론이 있었음.
- 현재 생명윤리법(47 조 1 항)에 따르면 유전자 치료 연구는 유전질환,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그 밖에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질병이면서 동시에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유전자 치료의 효과가 다른 치료법과 비교하여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이것이 포지티브 규제 방식임.
- 정부는 이러한 유전자 치료 연구의 허용범위를 모든 질병에 확대하고 예외적인 금지사항만 규정하는 방식인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바꾸려고 추진 중이며 국무조정실에서는 이를 이달 중순에 공개할 '신산업 규제혁파 방안'에 포함할 예정.
- 이번 규제완화에 대해 수혜를 입을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는 바이로메드, 메디포스트, 제넥신, 티슈진 등과 같은 유전자 치료제 업체이며, 마크로젠, 디엔에이링크, 툴센 등과 같은 유전자 편집 업체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판단됨.

유전자 치료제 시장 규모



자료: Global Industry Analysts, Gene Therapy (주: 2012년 기준)

-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투자판단 3 단계 (6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